

크리스마스 이야기

성경말씀: 눅2:1-20

어리 때 주일 학교에서 12월이 되면 학생들이 크리스마스이브 발표회를 위해 여러 날 연습하곤 했다.

그때 꼭 성경 암송을 하곤 했는데 오늘 읽은 눅2:1-20이 바로 그 구절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말씀,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낭송하는 구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는 누구인가? 바로 이 아기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11)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 탄생의 여러 요소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메시아

사람의 죄, 타락, 메시아 약속(창3:15), 여자의 씨 뱀의 머리, 메시아는 천사나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계시가 진행되면서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유대인(창12:1-3; 민24:17), 유다 지파(창 49:10), 다윗의 자손(삼하7:1-17), 처녀 탄생(사7:14),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탄생(미5:2)

1. 탄생 시기(1): 그 무렵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제국 유지를 위해 조세 등록이 필요하였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함. 구레뇨는 두 번 시리아 총독을 지냄, 처음 BC 4, 알렉산더 이후로 유대는 시리아의 부속 지방으로 평가됨. 도올 등의 AD 6년 주장 No!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아 계열(1:5), 임신, 그 뒤 6개월 뒤에 마리아 수태, 침례자 요한 BC 4년 유월절 경에 출생, 예수님은 BC 4년, 장막절 즈음에 태어났다(10월 중순). 33년 반을 사시고 AD 30년 4월의 유월절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2. 하나님의 섭리(1-4): 역사(History)는 그분의 이야기(His story)이다.

그 당시 카이사르가 통치하였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사용하여 조세 등록 요셉과 마리아 역시 세상 치리자의 명령에 따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으로 감(100km)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루신다. 이것을 '섭리'라고 함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

마리아와 요셉: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무슨 큰 목표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로 이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롬8:28의 섭리를 믿자.

또한 초림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이 시대에 재림의 역사도 조용히 이루심을 믿자. "거룩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자."

3. 베들레헴(4): 롯과 보아스의 고향, 다윗의 고향, 목동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던 곳

뜻: 빵집,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는 빵이 나온다. 그냥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

요6장: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요6:35-40

이 빵을 먹은 적이 있는가? 누구든지 오기 바란다.

4. 여관에 방이 없었다(7).

크리스마스 발표회, 한 아이가 이 대목을 맡았다.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극이 시작되자 그 아이는 도저히 마리아에게 방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낳으세요." 연극은 망쳤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심정이 있는가?

큰 교회는 많다. 성도들도 성숙하다고 한다. 목사도 설교를 잘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5. 하나님이 구유에 들어갔다(7).

구유는 소, 말의 여물 통, 온 세상/우주의 소유자, 존재하게 하신 분이 가장 천한 구유에 들어갔다.

가장 비천한 자리, 그리고 가장 참혹한 사형 틀에서 죽으셨다.

인간으로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

막10:35-40,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한 자리 주십시오. 제자들의 시기(41)

예수님의 말씀(10:42-44)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한다(히13:13).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치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먼저 수치의 십자가(cross), 그 뒤에 영광의 왕관(crown)을 받는 사람

6.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남(8-9). 놀라운 소식을 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10)

복음의 핵심 내용: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메시아), 주(11)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생긴다.

“모든 일이 잘된다는 말이 아니다.”, 행16의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도 기쁘다는 말이다.

세상 일이 잘 안 돼도 궁극적으로 기쁘다. 천국이 내 것이다. 아이러니 중의 아이러니

복음은 종교의 속박을 물리친다. 종교는 슬프게 만든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이 생명은 잠시 뿐이고 죽은 뒤가 영원하다. 그래서 죽은 뒤에 영원한

기쁨을 보장해 주는 종교가 산 종교이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 기쁨의 길을 준다(요11:25-26).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주님이시다(행4:12).

7. 구원자 탄생의 목적(14)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과 세상과 우주와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그래서 특히 공예배가 중요하다. 통영, 광양에서도 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일 총정리(고후5:19)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롬5:1)

사람들은 스스로 화평이 거하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땅에 화평이 있다.

그분은 평화의 통치자(사9:6)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히7:1), 멜기세덱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다(7:2).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늘 평안이 있다(요14:27; 16:33).

세상 종교는 사람을 무섭게 만든다. 믿음+행위, 환난 통과

결론

예수님 탄생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알고 기억해야 한다.

1.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신다. “욕심내지 말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자.”
2.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참 하나님, 참 사람, 구원자, 메시아 주님
3.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시다. 그분을 먹었는가?
4.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있는가?
5.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인가?
6. 우리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아는가?
7.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